6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소식

Gochang County Story

발행처 | 고창군 주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 063-560-2327 FAX | 063-560-2259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제 447호

〈 고창소식 〉은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주세요! (☎063-560-2327)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창군, 6일 덕산리 충혼탑 광장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열어

고창군이 6일 고창읍 덕산리 충혼탑 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묵념, 헌화와 분향, 추념사,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식, 헌시낭송에 이어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수는 "진정한 평화의 결실을 맺기위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모두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의향 고창인들을 기리는 국가수호 현충시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_내고장 현충시설정보서비스(mfis.mpva.go.kr) 참고

· 충혼탑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8-21)

1957년 6·25전쟁에 참전해 고창 일대에서 산화한 3081위(군인 951위, 경찰 253위, 민간인 1877위)의 순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충혼탑'을 건립했다.
고창군은 지역에서 산화한 고창경찰서장 조원춘 경감, 전북, 경남 경찰 등 순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애향심을 후대에 널리 계승시키며 나아가 그들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 이 탑의 건립을 추진했고, 1957년 6월25일 준공했다.

· 6.25 참전 유공자비

6·25참전유공자회 고창군지회는 2005년 9월 고창 출신 6·25참전유공자 300여명의 공훈과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해 건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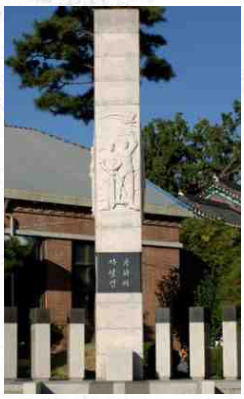
· 베트남참전 유공자 기념비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고창군지회는 2009년 2월 베트남전에 참전해 조국의 위상을 드높인 고창 출신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했다.

· 구시포 경찰전적 충혼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534-1)

1977년 11월 17일 산화한 지 2주기를 맞이해 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17기, 18기 전우 뜻을 모아 유명을 달리한 세 전우(김갑중, 양규식, 임동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했다.



· 자유 평화 진리의 탑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고창고 교정)

6.25전쟁 당시 고창군에선 자유와 향토수호를 위해 펜 대신 총을 들고 120여명의 학도의용군이 참전했다. 1951년 8월25일 선운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다 고창중학교 출신 학도의용군 6명(정택진, 민병욱, 이운교, 김봉수, 유익종, 박금석)이 산화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고창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탑을 건립했다. '자유·평화·진리'라는 제호는 고창고보를 졸업한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이 쓰셨다고 한다.

6월고창(高敞)의 인물

3·1운동의 시작, 2·8유학생 독립운동 지도자
근촌 백관수

일제 강점기의 교육자, 언론인이자 한국의 독립운동가·정치인이다. 호는 근촌(芹村)이며 고창군 성내면 생근리에서 태어났다.
서른 살 일본 유학 중 1919년 일본유학생들과 2·8독립선언을 주도했다. 당시 일본에서 2·8독립선언서는 백관수가 기초하고 춘원 이광수가 손을 본 명문으로 꼽히며, 한 달 뒤 3·1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귀국 후 중앙학교에서 잠시 교육 활동을 하다가 동아일보에 입사해 언론계에서 활동했고, 광복 이후에는 제헌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초를 담당했다.
1931년 성내면 양계리에 96명의 장학계원들과 함께 상해임시정부에 보낼 독립군자금 모집과 인재 양성 등 항일 운동을 위해 '흥동장학당' 건물을 짓기도 했다.
백 선생의 집안은 독립운동 4의사의 한 명인 구파 백정기 의사, 백인수 순국지사, 백낙일 지사 등 독립유공자가 많이 있으며, 관련 유적으로 전북도 지정문화재인 백관수 선생 고택, 흥동장학당, 덕산사 등이 있고 국가현충시설로도 지정됐다.

"생명의 보고 '고창 갯벌'에서 재미난 추억 만들었어요"

2019 고창 바지락 축제, 갯벌축제 성황리에 열려…신선한 조개 잔뜩 들어간 얼큰한 '칼국수' 인기몰이

진흙이 잔뜩 묻어도 상관없는 헌 옷과 장화, 맛소금을 들고 바다로 향한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갯벌에 조심조심 들어가 구멍이 숭숭 한 곳에 맛소금을 뿌려주면 조개가 빠끔히 고개를 내민다. 모두 캐고 깨끗하게 씻은 후 라면에 잔뜩 넣어먹으면 천국의 맛이 따로 없다.

아이들은 질펙한 갯벌에 들어가 갯벌에 사는 어패류를 찾아내며 갯벌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낀다. 몸이 진흙 범벅이 되는 건 중요치 않다. 갯벌 체험 자체로도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 갯벌에 깃든 생명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고창갯벌에서 가족, 연인들의 신나는 잔치, 2019 고창바지락축제, 갯벌축제가 펼쳐졌다.

'2019 고창 바지락 축제(5월18~19일)'에선 바지락 8톤과 깐 바지락 100㎏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또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피자, 해물탕 등 전문 셰프가 선보이는 '바지락 특화요리'는 큰 화제를 낳았다.

'2019 고창 갯벌축제(6월7~9일)'에선 '어서와 갯벌은 처음이지', '풍천장어 미식회', '잡아라 풍천장어', '고창갯벌홍보 UCC시상식'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 드라마 촬영지와 한복체험으로 뜬다

'시간을 초월한 견고한 아름다움' 고창읍성, 무장읍성 이색체험으로 관광객 몰려

#내_사람_하소 #녹두꽃_그네씬_촬영지 #무장읍성_객사_고목나무

자연석을 그대로 짜 맞춰 만들어 진 곳. 자연미가 있어 아름답고 서로 맞물려 있어 견고한 곳. 고창군의 명품 여행지로 손꼽히는 고창읍성과 무장읍성이 이색체험으로 뜨고 있다.

고창군이 지난 3월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통의복대여소가 SNS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이다.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안에 있는 '전통의복대여소'는 올해 고창읍성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의 중 하나로 기획됐다. 특히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접해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되고, 제한시간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녹음이 짙어지며 읍성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요즘, 곳곳에서 한복을 입고 즐거워하는 10~20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 온 한 관광객은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한복 입고 예쁘게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라며 셀카봉을 내밀기 바빴다. 이처럼 읍성 내에서도 ▲등양루(동문) ▲동헌(평근당) ▲맹종죽림 등이 한복 인생샷 성지로 알려지며 젊은이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드라마 '녹두꽃'에서 남녀 주인공이 그네를 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명장면이 촬영된 '무장읍성'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농생명수도 고창', 명품 농특산물 서울이어 중국 입맛까지 사로 잡는다

중국 방문해 우호교류 협약 맺고 농특산물 판촉전, 서울시와도 상생협력 강화

고창군수 등 중국 방문단(5월15~20일)이 인구 500만명의 농업도시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 우수 농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 지역은 우수 농특산품 연계홍보·판촉·수출시장 확대, 홈스테이·문화체험 등 청소년 교류, 습지의 관리·보존방안 정보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산동성 조장시를 방문해서도 우호교류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우수 농특산품 홍보·판촉전을 가졌다. 중국 조장시 최대 규모 쇼핑몰에서 열린 판촉전에선 복분자즙, 복분자 젤리, 땅콩, 홍삼베리, 복분자막걸리, 고창김, 죽염, 고구마, 복분자유과, 삼색보리 등 50개 품목이 전시·판매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고창군은 지난 5월22일 서울시장과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람·정보·물자 관련 상생교류 사업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서울시 직영 상설매장인 '상생상회' 에 고창군 5개 업체(복분자 순액·땅콩, 꽃차, 죽염, 고구마말랭이, 유과·망개떡)가 입점해 수도권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5월중 의원간담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5월 20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월1회 정기적으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청취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고창군의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 재요구 촉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5월 9일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구성방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위원회 구성 시 이해당사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재검토위원회 위원을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원전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발표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재검토 위원회 구성 시 원전 소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고창군을 비롯한 인접지역 주민들도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로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고창군의회 원전특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위원회 출범 규탄 집회 참석

고창군의회 임정호 한빛원자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위원인 조민규 의원과 함께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위워크타워에서 열린'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임정호 위원장은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립적 인사로 위원회를 꾸렸다는 정부 발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원전 소재지지역 주민과 원전 인접지역 고창군민 역시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로 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9일 결의문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구성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위원회 구성 시 이해당사자인 원전 인접지역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고창군의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5월 10일, 21일 고창군에서 열린 제56회 전북도민체전과 전북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위문 격려했다

조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축구와 테니스, 게이트볼 경기장 등을 방문하여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이들을 지지해준 선수단 임원진에게 따뜻한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군은 도민체전에 36개 종목 800여 선수·임원을 출전시켰고, 이어진 장애인체육대회에도 15개 종목 1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양 대회 모두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다.

관내 초등학생 의회 방문 견학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5월 14일(화), 16일(목) 이틀간 공음초·매산초등학교 3~4학년 학생 35여 명이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을 방문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 견학에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군의회 소개,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고, 의장과 의원, 사무과장 등의 역할을 나눠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토론 등 실제 회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해 민주주의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임시의장 역할을 한 공음초 4학년 임은규 학생은 의회에서 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매산초 3학년 정민음 학생은 "직접 의장석에 앉아서 의사봉을 두드리는게 재밌었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조규철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들이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를 바로알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2019년도 회기 운영계획(안)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	구분	기간(일)	내 용
6월 중	제 1차 정례회	9	결산검사승인, 군정질문, 의안심의
7월 중	임시회	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의안심의
9월 중	임시회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의안심의

일정	구분	기간(일)	내 용
10월 중	임시회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의안심의
11월~12월	제 2차 정례회	32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시책보고, 예산안 심의, 의안심의

방장산 권역 공동의 발전을 위한 첫 걸음

고창군, 정읍시, 장성군 모여 방장산권역 시군 정책협의회 열어

호남의 삼신산 중 하나인 방장산 권역 3개 시·군이 모여 공동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5월27일 고인돌박물관에서 고창군수, 정읍시장, 장성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방장산권역 시군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정책협의회는 호남의 명산인 방장산을 공유하고 있는 정읍시와 장성군, 고창이 함께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해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고창군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참석자들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비롯해 도계-장성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고창군은 '이웃이 울력해 함께 잘 사는 관광산업'을 제안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의 겹치는 축제 기간에 관광객이 3개 시군을 두루 방문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사업이다.
장성군은 삼남대로(전남해남~서울) 구간 중 갈재길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관광벨트화 사업을 제안했다. 정읍시는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과 함께 먼저 지정된 고창 고인돌과 고창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해 '유네스코 공동마케팅'을 추진을 제안했다.
고창군수는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인 고창군과 정읍시와 장성군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동반자로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손을 마주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고창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 '우수'

"복분자빵 · 장어빵 등 특화상품 개발로 젊은층 끌어들이는 전략 주효"

따뜻한 인정과 함께 볼거리·먹거리가 넘쳐나는 고창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고창전통시장이 지난 5월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는 '제1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발표회'에서 우수시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으로 선정됐다.
고창전통시장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이 모두 있는 지역의 장점을 살려 특산물과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특화사업으로 시도한 '장어빵', '복분자빵', '바지락라면'이 큰 인기를 끌면서 남녀노소, 현지인과 외지인이 함께 즐기는 소통의 장으로 주목 받았다.
이밖에 볼거리가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동서남북에 고창의 유·무형 자원과 특산물, 스토리를 부여한 특화디자인과 이미지 보드와 조명을 개발했다. 고창전통시장 정수곤 상인회장은 "앞으로도 상인 자생력을 강화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같은 훈련으로 비상상황 대처능력 키운다"

고창군이 5월29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2019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을 열었다.
이날 민·관·군·경 대테러 훈련은 유사 대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과 체계적이고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신속한 테러 진압은 물론 인명구조, 복구 활동으로 대 군민 안전 확보와 물적 손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정체불명의 테러로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수습 체계를 구축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종교,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테러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테러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 및 지역금융기관 15곳과 고창사랑상품권 발행 업무협약

고창군에서도 오는 7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각종 물품을 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 관내에서만 유통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7월부터 고창관내 음식점, 빵집,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 930여 곳에서 일반 화폐처럼 사용한다. 상품권은 농협, 신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에서 구입 할 수 있다.
군은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캠페인과 함께 지역 내 점포를 방문해 고창사랑상품권 홍보와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창군은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금융기관 15곳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창군 GOCHANG COUNTY GS리테일

고창군-GS리테일, 지역농식품 판매·유통발전 맞손

고창군과 국내 유통 대기업 GS리테일이 지역농가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창군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정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농가의 판로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은 5월2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군수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GS리테일 임직원, 고창농협, 고창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었다.
양측은 협약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등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입점 및 소비촉진 행사 추진 ▲고창군 주 출하 품목에 대한 안정적 판로지원 ▲로컬 푸드 확대를 위해 GS리테일 매장을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지원 등을 약속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협력사를 통해 쌀, 잡곡, 고구마 등 47억원을 매입해 왔다. 올해는 업무협약으로 수박, 메론 등 다양한 품목 80억원 이상을 매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GS리테일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가치 제공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 특산물 유통이 GS리테일의 노하우와 인프라에 힘입어 크게 확대 될 것"이라며 "행정과 기업이 하나 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

대산면지역사회보장협
독거노인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지원

고창군 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순자, 조우삼)가 지난 5월16일 관내 독거어르신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 35세대에 폭염대비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가구별 가정방문을 통해 여름잠옷과 모기장을 전달하며 안부확인과 함께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상황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을 안내하고, 생활불편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강순자 위원장은 "이번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지원을 통해 어르신이 폭염을 이기고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원 한빛본부
고창 아동복지시설에 업무용 차량 지원

고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지난 14일 고창군 아동복지시설 희망샘학교에서 승합차 전달식을 가졌다. 고창군 무장면 희망샘학교는 현재 50여명의 청소년이 생활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다. 아동복지사업 수행 등 차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업무용 승합차를 지원받게 된 희망샘학교 김정강 원장은 "이번 차량지원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빛원자력본부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향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대표가 고향(고창군 대산면)을 찾아 지역 경로당 8곳에 태양광을 설치해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고창군과 주)에스알에너지 정대홍 대표가 5월28일 고창군 대산면 소재 경로당 8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통상 태양광 설치는 1곳당 450만원이 소요되며, 이번에 모두 3600여 만원 상당의 기부가 진행됐다.
정대홍 대표는 "고향 어르신들이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이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재능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향지역 경로당 등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
홀로 어르신 집안 청소 봉사

고창군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음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지난 5월11일 홀로 어르신 가정인 공음면 마래마을 할머니(83) 댁을 방문해 집안 내·외부 대청소와 집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도와줘서 집이 깨끗해졌다"고 환하게 웃었다.

아산면 지역사회보장협
밑반찬 봉사활동

고창군 아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나종창, 이성수)가 지난 5월23일 지역내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건강가득! 영양만점! 반찬드림사업'을 진행해 이웃사랑활동을 펼쳤다.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재료구입과 자원봉사를 펼쳐 맛있는 김치와 밑반찬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전달했다.

고창군 강성모씨
인재키우기 장학금 200만원 기탁

고창읍 강성모(전 고창군청 건설과장)씨가 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강성모씨는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꿈나무들의 인재 양성에 동참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고창군 교육발전이라는 큰 행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엘림건설엔지니어링 조보익 대표
불우이웃 돕기 성금전달

지난 5월21일 엘림건설엔지니어링 조보익 대표가 군청을 찾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조보익 대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창군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블랙야크 정읍지점
"孝를 나눠요"

블랙야크 정읍지점(점장 남건욱)이 5월21일 4만원 상당의 '효(孝)박스' 식생활용품 키트 40박스를 고창군 관내 취약계층 홀로어르신에게 전달했다. '효(孝)박스'는 1인당 4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으로 구성되어 고창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전달됐다.
남건욱 점장은 "작으나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어르신들이 위안을 받길 바란다"며 기부문화 확산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80대 은퇴 어르신, 지역 어려운 아이 돕는다
고창실버타운 김종우(83)·김성수(66) 어르신, 지역아동 후원 결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최근 고창군청에 반가운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다. 고창 석정 실버타운에 사시는 어르신 두 분이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던 것. 이에 고창군 드림스타팀은 회의를 열고 어르신과 결연을 맺을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김종우 어르신(83)은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평소에 적게 쓰면서 저축했던 돈을 알차게 쓰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 결연을 결심했다"고 웃었다. 김성수 어르신(66)도 "덜 쓰고 절약하면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아이가 성장해선 또 다른 어려운 아이를 돕는 선순환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창군 드림스타팀은 수차례의 면담과 사례검토를 통해 김종우 어르신과 아이 3명(고2, 고1, 중1), 김성수 어르신과 아이 1명(초5)의 결연을 성사 시켰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 도움을 받는 친구들과 격차가 난다. 도움을 주시면 수학, 영어 과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공군부사관을 지낸 후에 민간항공사에 지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아이 B군은 다문화가족으로 어머니와 형, 동생과 살고 있으며 곧 막내 동생이 태어난다. 김성수 어르신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4명의 아이들을 키운다는 말에 매달 생활비(5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결연을 맺은 한 아이는 악기교습비(월 30만원)를 지원 받는다. 고창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 연습에 참여하며 콘트라베이스의 매력에 빠져 꿈을 키워왔지만 열악한 가정환경 탓에 개인교습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이는 "친구 따라 놀러와 1년 만에 하모니의 중심역할을 하는 묵직한 저음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콘트라베이시스트로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밝혔다.
김종우 어르신은 전북 남원 태생으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했다. 어르신은 "우연한 기회에 석정온천에 와 보고 고창이 너무 마음에 들어 눌러 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수 어르신은 고수에서 사업을 한 아버지로 인해 고창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석정실버타운 대표로 일하며 고창군이 전국 은퇴자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 업 탐 방

아이보리

100%고창산 보리사용..
내 아이를 먹인다는 엄마마음

영농조합법인 아이보리_장현정 대표

'정직하고 안전하며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의 공급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현에 힘쓰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농·식품 강소기업을 지향한다'는 경영이념으로 운영하는 고창군 기업이 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영농조합법인 아이보리'이다.

3명의 아들을 둔 아이보리 장현정 대표는 아이들에게 믿고 먹일 음식이 없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이를 계기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아이보리 보리차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아이보리의 힘찬 첫 출발이 되었다.

아이보리의 주요 제품은 건강차와 쌀과자이다. 이외에도 청정지역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쌀가루, 천연양념 등이 있다. 아이보리의 보리차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골라낸 100% 고창산 겉보리만을 사용하여 보리의 유효성분이 그대로 담겨있다. 또한 겉보리를 수차례 세척 후 정성을 담아 연하게 덖어 만들어 탄맛이 없고 달달하고 구수한 맛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어린 작두콩을 덖은 작두콩차, 당뇨에 좋은 돼지감자차, 감기에 좋은 도라지차 또한 아이보리의 대표상품이다. 아이보리의 아기과자는 단계별로 맞춤상품으로 나뉘어져 시기에 맞춰 아이들 먹이기에 편리하다. 주요 판매처는 상하농원, 농협하나로마트,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옥션 등이다.

장현정 대표는 사회에 공헌하는 건강한 기업, 고창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기 위해 분기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인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또 고객의 아기를 홈페이지 메인모델로 발탁하고 아이들의 이유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등 엄마들과의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현정 대표는 "내 아이를 먹인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더욱 정성껏, 정직하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T E L : 1522-3051
홈페이지 : www.i-bori.kr

고창군일자리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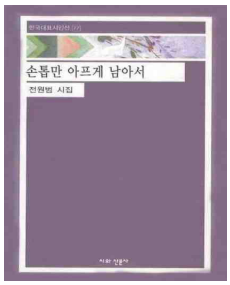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구인/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
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 : 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063-560-2366)

연번	업 체 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석정레져주식회사	1	총무 및 일반 사무원	연봉 2,600만원 주6일근무/08:00~17:00 *월6일휴무.탄력적휴무제*	채용시	고창읍
2	서울시니어스 엠엔에스고창	1	실버타운 분양팀직원	연봉 2,400~2,600만원 주6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3	인촌산업 영농조합법인	1	사료원료운송원	월급 210만원 주5일근무/08:00~18:00	채용시	고창읍
4	(주)현대이엔지	1	전기기술자 (전기견적, 공무포함)	월급 200만원 주5일근무/08:30~17:30 *면접후협의가*	채용시	고창읍
5	현대고창서비스	1	경리사무원	월급 175만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고창읍
6	고창주류(유)	1	배송납품운전원	연봉 3,00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7	성산식품	2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7:00	채용시	고수면
8	㈜홍영선 볶은곡식	2	곡물가공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7:00	채용시	고수면
9	이앤지푸드	5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부안면
10	(유)도건 엔지니어링	1	자재 및 공무 사무원	월급 200~400만원 주6일근무/(평일)08:00~18:00 (토요일)08:00~18:00 *면접후협의가*	채용시	흥덕면
11	대경스틸 산업주식회사	2	철강제품생산직	연봉3,000만원 주5일근무/09:00~18:30 *격주토요일근무*	채용시	흥덕면
12	하이펙코리아	1	기계파트 및 포장파트생산원	시급 8,350원 주5일근무/ 포장파트 08:30~20:00 기계파트 06:30~18:30	채용시	상하면
13	농업회사법인(주) 에스카렙	1	생산직(남)	월급 180~20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연장근무가능자)	채용시	부안면
14	해풍영어조합법인	1	경리사무원	월급 175만원(면접시협의가)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심원면
15	해풍영어조합법인	3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심원면

사서추천 - 함께 읽고 싶은 책

일반도서



손톱만 아프게 남아서

전원범 / 시와산문사 / 2009

군립 : 811.7 전66ㅅ

1944년 고창에서 태어나 1972년 동시 〈꽃시〉로 전남일보 신춘문예, 1975년 〈해〉로 중앙일보 중앙문예 동시 부문에 당선되었다.
교육자로서 아동의 언어지도와 한국 전래동요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수의 동시집과 시집, 시조집 등을 펴내며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대표 시집중 하나인 「손톱만 아프게 남아서」 는 일상어의 생생함을 살려내면서 지적이고 정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어를 통해 오늘의 일상 가운데 상실되었던 과거 세계와의 일체감, 그리고 자기동일성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시인은 현대 아동문학상, 소파문학상, 광주문학상, 한국시조작품상, 고창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아동도서

왜냐면...

안녕달 / 책읽는곰 / 2017

성호 : 유813.8 안194ㅇ / 대산 : 아813.8 안194ㅇ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집으로 가는 길 세상이 온통 궁금한 아이와 엄마의 마중길에는 한없이 넓어지는 아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재치 있는 대답을 이어갑니다.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유머와 재치가 번득입니다.
처음에는 과감한 전개에 살짝 당황할 수도 있지만 어느새 이야기에 흠뻑 빠지게 되고, 즐거운 상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이와 함께 상상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고창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고창군은 전라북도와 발맞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저소득층에게 오는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합니다.

1.대상
전 군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1개월 이상 거주)

2.소득·재산기준
소득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재산 : 9,500만원 이하(금융포함)

3.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 4인가구 기준 645만8000원 -재산기준 : 3억원

4.급여종류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5.신청절차 : 기초수급자 신청→조사→결정→탈락·중지자의 전북형 수급자 결정→급여제공→사후관리

유춘봉 명인과 재미난 고창도자기 이야기 함께해요

동곡요 3대 요장 유춘봉 명인..문체부 주최 '2019지역명사' 선정
45년간 전통자기의 재현에 헌신.."흙과 불, 영혼 실은 도자여행 프로그램 선보일 것"

고창읍성 앞 도예체험장. 명인이 백자토를 몇 차례 두드려 크게 모양을 잡은 뒤 물레 위에서 슥삭슥삭 손을 놀리자 원통형의 흙덩어리가 20여분 만에 둥근 보름달을 닮은 항아리로 변했다.

고창에서 평생동안 흙을 만지며 자기를 만들어 오고 있는 동곡요 3대 요장인 유춘봉 명인. 유 명인은 한국 청자의 최종 주자 '최남성(崔南星) 선생'을 사사한 유길상(柳吉相 1924~1952.동곡요 1대 요장) 선생에 이어 선친인 유하상(柳夏相 1928~1990. 동곡요 2대 요장) 선생의 가업을 이어받아 3대 요장으로 45년여간 전통자기 재현에 몰두하며 고창자기의 맥을 잇고 있다.

유 명인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9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사업에 선정됐다.

'흙과 불, 영혼 실은 도자여행'을 주제로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의 도자역사이야기와 함께 도요지 둘러보기, 도예체험프로그램 등을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은 아산면 용계리에 고려청자 첫 가마터가, 부안면 수동리에는 조선전기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되는 등 한반도 도예 예술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춘봉 명인은 "지역 명사로 선정돼 개인적인 기쁨도 크지만, 고창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길을 열었다"며 "이를 계기로 고창 자기의 예술성과 전통성이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춘봉 명인은 지난해 9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명인인증위원회 최종 심사 등 4개월간의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명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함께 찾아요 행복을 잡(JOB)아요" - 고창군 로컬잡(JOB)센터

고창군 로컬JOB(일자리) 센터는?

농공단지와 마을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ㅁ구직신청 및 상담
- ㅁ이력서 컨설팅 및 동행면접
- ㅁ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 ㅁ일자리 나눔 프로젝트 운영

문의 : 063-561-5234 위치 :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 1길11, 월곡꿈에그린커뮤니티센터